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 지원활동

1 원자폭탄 투하 및 피해자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인류역사상 최초의 핵무기인 원자폭탄을 히로시마(廣島)에 투하하였고, 같은 해 8월 9일 나가사키(長崎)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원자폭탄 투하 당시 히로시마에는 약 42만명, 나가사키에는 약 27만명이 살고 있었으며, 이 중 피폭시 외상이나 급성방사선 장애로 사망한 사람은 히로시마 약 16만명, 나가사키 약 7만4천명에 이릅니다. 이들 희생자 중에는 많은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조선인이 가장 많아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조선인은 히로시마 약 5만명, 나가사키 약 2만명이며, 피폭당한 조선인은 히로시마 약 3만명, 나가사키 약 1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후 귀국한 원폭피해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 원호수당 지급 등 각종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피폭자 인원과 조선인의 피해 상황

피폭지	전체		조선인				
	피폭자	사망자	피폭자	사망자	생존자	귀국자	일본체류
히로시마	420,000	159,283	50,000	30,000	20,000	15,000	5,000
나가사키	271,500	73,884	20,000	10,000	10,000	8,000	2,000
계	691,500	233,167	70,000	40,000	30,000	23,000	7,000

참고문헌 : 이치바 준코 著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2003년)

3 원폭피해자 지원 배경

○ 한국정부 지원

원폭 투하 후 생존한 한국인들은 서둘러 귀국하였으나 적절한 치료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일본의 핵병기금지 평화건설 국민회의의 도움으로 1973년 원폭진료소(합천 보건소)를 경남 합천에 설치하였고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981년에는 한일 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도일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도일치료를 시작하여 1986년부터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 산하 적십자병원에서 국내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방일시 한일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위한 양국정부간 40억엔 지원금 출연에 합의, 본격적인 국내 원폭피해자 복지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재한원폭피해자 복지사업을 한국정부로부터 수탁하여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본정부 지원

일본정부는 2002년 5월 재외피폭자 도일지원 등 사업 실시요강을 공포하고 재외피폭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는 2003년 8월 일본 나가사키현과 체결한 계약에 의거 추가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원폭피해자 지원내용

○ 진료비 지원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진료보조비 지원	월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분기별로 지원
○ 피폭자건강수첩 신청 지원	일본정부가 발급하는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도일치료 지원	도일치료 희망 시 일본의 피폭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건강상담	일본 피폭의료 전문 의사를 초청, 건강상담을 통해 원폭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건강 유지 및 건강 증진을 도모
○ 원폭증인정 신청 지원	방사선 기인성 질병으로 현재 치료가 필요한 원폭피해자가 일본정부로부터 원폭증(原爆症) 인정을 받도록 지원
○ 원호수당 지급	재한수급권자에게 매월 지급
○ 보건의료비 지원	피폭자건강수첩 및 피폭시상황확인증 소지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종합건강검진	연 1회 종합건강검진 실시
○ 장례비 지원	원폭피해자 사망시 장례비 지급